

# 부활 후 40일 절대 언약

사도행전 1:1-3

정운돈 목사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마28장, 막16장, 눅24장, 요20~21장, 그리고 행1장까지 총 여섯 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순서가 헷갈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 40일 동안 주님의 행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

## 서론 :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성격유형분석을 해 보면, 예수님의 성격은 계획성이 있는 것이었다. 주님이 얼마나 계획성이 있었던지, 영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을 다 해 놓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오셨다. 아주 철저히 계획 속에 있는 분이였다.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나.

(1) 예수님의 절대 목표는 창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였다. 하나님 떠나서 온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창3장으로 돌아가지 않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다. 창3장, 6장, 11장, 기준이 전부 나 자신이다. 나는 시골에 살다가 어찌다 보니 교단 안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십 번을 해 보니까 정리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끝은 돈이었다. 내 이름 끝도 돈인데. (웃음) 처음에는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끝이 돈이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이 있다. 끝이, 이유가 돈이 아니라 복음인 사람이 있다. 이런 분은 대화하면 할수록 시작도, 끝도, 중간도 다 복음이다. 이런 분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복을 주시겠구나.’ 싶다. 교단 안에도 작은 교회 분들이 있다. 다락방한다고 어려움 당해서 교인들 다 떠났는데도 이 운동을 한다. 대화해 보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붙잡고, 삶의 이유가 오직 복음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2)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 행13장, 16장, 19장으로 간다. 현장에 가 보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 다곤 신 섬기는 데로 간다.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단의 손에서 빼내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것이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몰랐다. 그런데 다락방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콜 중독인 사람이 자기 며느리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도 시름시름하다가 죽었다. 결혼식을 못 치른 게 너무 불쌍해서 영혼결혼식을 한다고 절에다 또 돈을 내고 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 내가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우울증 때문에 누가 투신 자살을 했는데, 이 시체를 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다 치웠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 그만쫘다고 한다. 현장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문제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3) 개인의 문제,

(4) 전쟁과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 1.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분명히 주님은 40일 썩이나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 지금 영으로 계시는가, 육으로 계시는가? 답은, 부활체로 계신다는 것이다. 그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모습이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가 없어졌을 것 같다. (웃음)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지 않나. 상황 따라서 모습이 또 달라진다. 소망부 어른들이 다 꽃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때는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 (웃음) 그때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본다. 천국 가면 알아보겠나, 못 알아보겠나? 외모는 달라도 이미지가 있지 않나? 아마 그것을 영으로 느낄 것 같다. “어! 저 느낌은 그분인데!” 하면서 뒤통수만 보고도 알아차린다. 선후배 있나, 없나? 남자, 여자, 있나, 없나? 다 없다. 위아래도 없다. 세복이는 천국 가서 나 만나면 반말 하지 마라. (웃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다 좋아도 그건 좀 안 좋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천국 가서도 나 부러먹으려고?” (웃음)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 천국이다.

(1)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 28:7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것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열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열한 번이 전부이겠는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 사람들에게 전부 하나하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인가? 갈릴리다.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불과 1주일밖에 머무르지 않으셨다. 대부분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가셨겠는가?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날랐던 중들을 만나시지 않았겠는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셨겠는가? 나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것 같다.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개념이 민주주의 국가와 다르다.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다.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모든 것을 김정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니고데모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실로암 소경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을 것이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만나셨을 것이다. 빠뜨리면 안 되는 사람이 오병이어 때 도시락을 헌물했던 아이다. 아마 그 집에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내가 부활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가다락방으로 가라.” 이랬을 것 같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산에서 만나셨다고 했다. 이게 마28:16-20이다. “<sup>16</sup>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sup>17</sup>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sup>18</sup>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sup>19</sup>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sup>20</sup>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절대 언약을 주신 것이다.

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도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당연성과 필연성을 붙잡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 사람이면 된다. 재앙과 저주, 전쟁을 막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알파고를 능가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② 가라고 했다. 우리는 모든 현상으로 가야 한다.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캠프로 가야 한다. 가면 보인다. 안 가면 안 보인다. 성령인도 따라서 가시기 바란다.

③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 다문화를 풀어야 한다. 우리교회에도 지금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있다.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④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다. 교회화를 말씀한다.

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다. 삶에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누리게 해야 한다. 복음 가진 자로서 직장,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잘 못하는데 찾아내어야 한다. 매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당연한 것을 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져 나가야 한다. 소망부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겨우 구원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이유까지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부족한데,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셔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의심 많고 부족한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 믿고 감당하시기 바란다. 기도하고 지교회 문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 준비되어서 한다면 언제 하겠는가.

(2) 마가복음을 보라. 막16:9이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는가? 영적인 이야기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영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내어야 한다. 무당들을 만나 보면 얼마나 삶이 무너져 있는지 모른다. 음란에 크게 빠져 있다. 귀신이 남편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무당이 귀신에게 잡힐 때는 성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음란할 수밖에 없다. 이 귀신, 불신앙의 귀신, 음란의 귀신, 타락의 귀신, 술 마시게 하는 귀신, 도박하고 마약하게 하는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도 치유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막16:12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다. 막16:14에는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 부활하셨으니까 웬만하면 성격도 좋을 텐데, 꾸짖으시는 것이다. (웃음)

(3) 그러면서 꼭 말씀하신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 요한복음 21장이다.

## 2.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언약이 무엇인가?

(1)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자마자 말씀하셨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 순교하게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명령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큰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를 통해서 평강을 대언하고 계신다. 평강을 가지시기 바란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천명목표인 것이다.

(2)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다. 주님은 땅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 믿기를 바란다.

(3)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이길 것을 말씀했다. 막 16:15-20이다.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아닌가. “<sup>15</sup>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sup>16</sup>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sup>17</sup>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sup>18</sup>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이 믿음을 가져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건강을 복음 때문에 가지시기 바란다.

(4) 그러면서 명령하셨다. 온 땅,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 결론 : 시작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행1:1, 3, 8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온 21가지 삶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활은 이미 우리가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다. 그 다음에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의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삼고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다. 건강한 체질, 복음 전하는 체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나는 이제 부족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회개다.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알콜 중독, 도박 중독을 치유하는 시작이, 자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생각한다면 발전이 없다.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점과 연약함을 바꿔서 갱신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1천만 제자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전도도 계속 재창조해야 한다. 복음도 계속 재창조해야 한다. 전에는 구역장들보고 출석체크해 달라고 했더니 다 못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날 바로 출석이 다 확인된다. 왜 이것을 하는가? 주일저녁에는 전부 교회 안 온 분들 체크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붙잡고 구역장님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인도를 받으면서 연락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 스마트하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결석률이 엄청 줄었다. 우리는 사실 아직도 80, 90%가 기존신자 교회화해야 할 시간이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다음 이야기다. 사명자들조차 지금 우리교회는 흔들리는 수준이다. 지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다. 당연한 것을 안 하고 도망다니고 있다. 그런데 뭘 하겠는가. 당연한 것부터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적은 숫자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살리게 될 것이다. 구역단위로 회복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캠프를 해야 한다. 새로운 가족을 살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자연스럽게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